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80호 [루게 제 24958호] 주 104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모두다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땀땀이 들어서자

백암전역을 진감하는 화선식경제선동의 힘찬 포성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사상적인 포성이 드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드넓은 백두산선군청년 1, 2호발전소건설장의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판철루프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청년들격대원들과 건설자들, 군인들의 심장의 퍼를 세차게 뚫어 버리고 있고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에 고무추동하는 화선식경제선동,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진감하고 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현장방 송과 방송선전차를 통하여 선전선동공세가 힘있게 벌어지고 각 단위의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곳곳에서 부르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가 결사관철의 분초로 이어지는 전투장의 분위기를 백배로 고양시키고 있다.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되어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세차게 들이대는 속에 만년연제가 하루가 다르게 솟구쳐오르고 물길굴과 발전기실, 살림집공사장 그 어디에서나 새로운 조선속도가 창조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지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 니다.》

현장연합지휘부에서는 1, 2호발전소건설을 당장전 일흔날까지 끝내기 위한 근비결을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는 데 찾고 모든 선전선동력량

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원들과 각 려단정치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판철로 청년들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직관관들을 새로운 내용으로 보충하고 《청년강국》, 《선군청년문화》 등의 코어들을 건설장과 병설, 도로의 곳곳에 새롭게 세워 건설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1호발전소연계 파우안에 출력이 큰 방송설비들을 새롭게 전개한데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제때에 전하면서 집중적인 방송선전을 드세차게 전개하고 있다.

현장연합지휘부 정치부에서는 각 려단 청년기동에 예술선동대의 령도와 수단들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이 화선의 나팔수가 되어 청년들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 적극 고무추동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각 려단 청년기동 예술선동대원들을 특색있게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사상적 수준과 예술적기량을 한계단 끌어올리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공사대상인 1호발전소장에 청년기동에 예술선동대력량을 집중하고 경제선동의 드넓은 포화를 들이대어 연세공로크리

타입전투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 있다.

합경남도려단, 합경북도려단, 평양시려단, 평안북도려단의 청년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이 청년들의 특성과 전투장의 분위기에 맞게 화선식경제선동 활동을 잘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가리리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선넘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와 화선선동, 혁신사색하공연을 잘 배합하여 낮과 밤을 이어가며 즐거운 타입전투를 벌리고 있는 청년들격대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백두대지로 달려온 중앙의 예술선동대들도 화선식경제선동을 특색있게 벌려 건설장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하고 지난 5월 중순 발전소건설장을 찾은 만수대에 예술단, 피바다극단의 예술인들은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 기적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백두산선군들의 심장의 퍼를 더욱 뚫어하는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6월 중순과 하순에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조선인민내무군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이 연세건설장에서 여러차례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공연활동을 벌려 청년들격대원들과 건

설자들에게 발전소완공의 그날을 앞당겨줄 신심과 용맹을 더해 주고 있다.

일당백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군인정신, 군인이질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는 백두산선군청년 2호발전소건설장에서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날을 따라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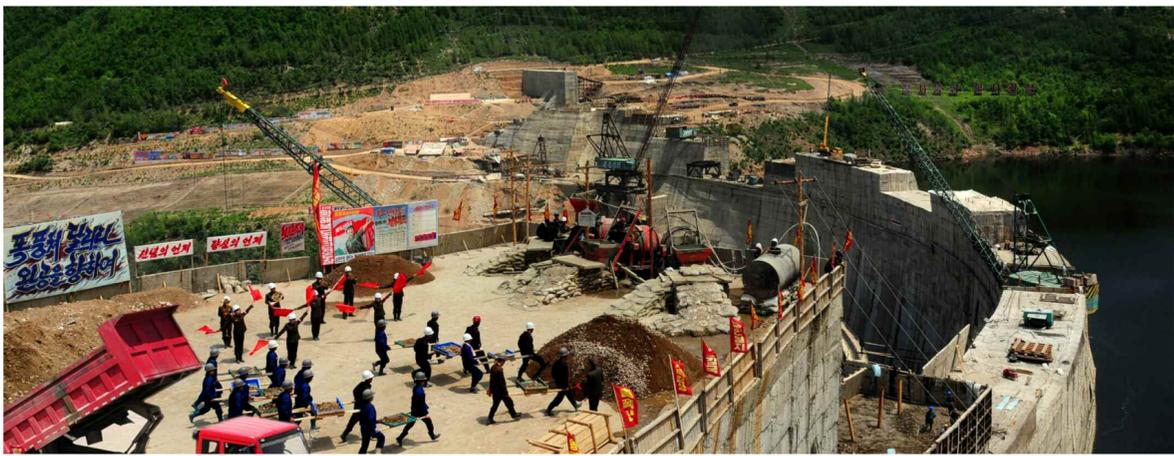
인민무력부 현장지휘부의 정치일꾼들은 혁명군대의 본매가 뚜렷이 살아있는 부대별 직관선전관들을 통이 크게 설

치고 곳곳에 《혁명적군인정신》, 《천년백일, 만년보중》, 《폭풍치라 단숨에》를 비롯한 힘있는 글발들과 포이들을 세워 온 전투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각 부대에서는 방송선전차에 의한 방송선전에 특별히 힘을 넣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전투소식을 지켜갈 굳은 결의를 안고 건설장에 달려와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적

이 펼쳐나선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투쟁모습에서 열배 배의 힘과 용기를 얻으며 공연 활동을 맹렬하게 벌려 공사장의 전투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민군 후방건설소속부대의 군인들이 각기 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이 남달라와 함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전투소식을 지켜갈 굳은 결의를 안고 건설장에 달려와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적

이 펼쳐나선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투쟁모습에서 열배 배의 힘과 용기를 얻으며 공연 활동을 맹렬하게 벌려 공사장의 전투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민군 후방건설소속부대의 군인들이 각기 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이 남달라와 함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전투소식을 지켜갈 굳은 결의를 안고 건설장에 달려와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적

이 펼쳐나선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투쟁모습에서 열배 배의 힘과 용기를 얻으며 공연 활동을 맹렬하게 벌려 공사장의 전투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민군 후방건설소속부대의 군인들이 각기 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이 남달라와 함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전투소식을 지켜갈 굳은 결의를 안고 건설장에 달려와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적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

평양국제비행장-3대혁명전시관 자전거길, 걸음길로반

건설공사와 중심거리 자전거길건설 열흘동안에 결속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울려퍼지고 있다.

당장전 70萬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려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속에 평양시 건설문화의 중심지답게 보다 훌륭히 꾸러기 위한 사업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루어졌다.

육류공과 대동교사이 량안유보도공사를 일제계획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끝낸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세를 높추지 않고 시가 말은 방대한 공사파제인 평양국제비행장-3대혁명전시관 자전거길, 걸음길로반건설공사와 중심거리 자전거길건설을 열흘동안에 전반적으로 결속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평양시에서 거리형성과도건설을 잘하고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특색있게 건설하며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수도의 도로건설을 잘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수행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평양시 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과제를 벌이면서 내적해결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 들었다.

지난 6월 중순 시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령력으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시안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평양국제비행장-3대혁명전시관 자전거길과 걸음길로반, 수도의 중심거리 자전거길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전폭적으로 들이쳤다.

평양국제비행장으로부터 3대혁명전시관까지의 자전거길과 걸음길로반건설만 보아도 그 공사규모와 작업량은 간단치 않았다. 시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만 도 총길이가 15km에 달하는 도로였에 군 4만㎡에 달하는 토량과 양반을 절토하고 용벽을 쌓는것과 함께 10만㎡의 토량을 성토하여 새로 로반을 닦아야 하였다. 뿐만아니라 수십km구간의 경제시설, 물에기 시설공사와 열도량공사, 수십개소의 석축공사와 갖출제작설치를 비롯하여 잔디 코스모스심기를 비롯한 작업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시당위원회 책임일꾼으로부터 시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투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평양국제비행장으로부터 3대혁명전시관까지의 자전거길, 걸음길로반건설장은 첫날부터 그야말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전투과업이 떨어진 그날부터 각 혁명전시관까지의 자전거길, 걸음길로반건설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5일동안에 말은 작업과제를 제일먼저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수도려개운수국과 평양시석탄공업관리국, 평양야금생산국,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 대성산체육관, 중앙열량사업소를 비롯하여 수십개 단위에서 자전거길과 걸음길로반건설을 위하여 매일 공사실적을 확대해나갔다.

제일 긴 작업구간을 맡은 순안구역과 형제산구역에서도 구역의 령력을 총동원하여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구역책임일꾼들이 전투현장에 서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진행하였다.

일꾼들의 정치사업과 이신칙적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집행할 드높은 열의

다란 자부심을 안고 건설에 떨쳐나선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결사투쟁을 벌여 사람들의 눈을 뒤집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평양의 정신이자 조선의 기상이며 평양의 발전속도이자 우리 조국의 힘찬 보폭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자각한 서성구역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5일동안에 말은 작업과제를 제일먼저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백수집km에 달하는 수첩로 선의 새 자전거길을 내는 건설역시 어렵고 힘든 전투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새 자전거길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중심구역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심장의 퍼를 뚫으며 매일 말은 공사파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자전거길건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새로운 자전거길들이 건설됨으로써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열의와 용기는 당이 온 과업이라 하면 몸이 열조각나는 한이 있어도 최단기간에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수행해내야 하는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에 애국충정의 정신력이 안아온 또 하나의 자랑찬 결실이다.

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열흘동안에 말은 과제를 성과적으로 해제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중심구역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수도의 중심거리 자전거길을 새로 내기 위한 전투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백수집km에 달하는 수첩로 선의 새 자전거길을 내는 건설역시 어렵고 힘든 전투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새 자전거길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중심구역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심장의 퍼를 뚫으며 매일 말은 공사파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자전거길건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새로운 자전거길들이 건설됨으로써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열의와 용기는 당이 온 과업이라 하면 몸이 열조각나는 한이 있어도 최단기간에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수행해내야 하는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에 애국충정의 정신력이 안아온 또 하나의 자랑찬 결실이다.

합경북도육아원, 애육원건설장에서

합경북도육아원, 애육원건설장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자재보장을 앞세워 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에 참가한 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기초공사에 이어 여러 건물의 골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질적으로 끝내고 내외부장작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건설현장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심장에 새겨안고 육아원, 애육원을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는 선진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 능력있는 일꾼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무산판상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의 중요단위들이 육아원, 애육원건설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공영일, 김철철,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꾼들은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시

공조직을 짜고들어 건설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자재보장을 앞세워 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에 참가한 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기초공사에 이어 여러 건물의 골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질적으로 끝내고 내외부장작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건설현장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심장에 새겨안고 육아원, 애육원을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는 선진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 능력있는 일꾼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무산판상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의 중요단위들이 육아원, 애육원건설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공영일, 김철철,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꾼들은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시

공조직을 짜고들어 건설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자재보장을 앞세워 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에 참가한 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기초공사에 이어 여러 건물의 골조공사를 100여일동안에 질적으로 끝내고 내외부장작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건설현장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심장에 새겨안고 육아원, 애육원을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는 선진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 능력있는 일꾼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무산판상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의 중요단위들이 육아원, 애육원건설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공영일, 김철철,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꾼들은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벌안고 논벼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 있다.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림락 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골짜기 바닷물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석탄생산의 정상화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평성석탄공업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감망장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해결하면서 석탄산출을 높이 쌓아가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탄광들에서 골진을 앞세우는 것은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평성석탄공업대학 탄광건설공학부 탄광건설공학과교의 교원, 연구자들이 2, 8직동 청년탄광에 달려나가 현장조정에 맞는 화공품을 개발도입하여

골진속도를 높임으로써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시기 갱들에서 리용하던 화공품들은 습기에 화공품의 위력이 떨어지고 발파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로 하여 제때에 작업에 착수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많은 량의 화공품을 중

사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탄광의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현장에 달려나간 부교수인 김운찬, 최창복동무들은 현장조건에서 탄부들이 사용하기 쉽고 안전한 화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

많이 들어있어 습기에 매우 안전하다. 결과 폭약의 위력이 최대로 되어 골진속도를 이전에 비해 훨씬 높게 된다.

여러 막장들에서의 도입검험에 의하면 이 화공품을 사용하면 1m 당 골진원가를 훨씬 줄이면서 골진속도를 높였다고 한다.

교원,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

공품을 도입함으로써 탄광에서 나오던 유해가스가 90%이상 제거되어 막장들에서 탄부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석탄생산능률이 훨씬 높아졌다 한다.

현재 2, 8직동청년탄광에서는 골진실적을 기록하면서 계속혁신의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본사기자 리은남

공품을 도입함으로써 탄광에서 나오던 유해가스가 90%이상 제거되어 막장들에서 탄부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석탄생산능률이 훨씬 높아졌다 한다.

현재 2, 8직동청년탄광에서는 골진실적을 기록하면서 계속혁신의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본사기자 리은남

석탄생산정상화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연구성과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이로 감싸야 하기때문에 종이상비가 많았다.

강좌장인 교수 박사 김영철동무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기본골진과 준비골진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 석탄생산의 선결조건임을 명심하고 그 실현을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뒤받침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석탄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열리게 할라는 각오를 지닌 교원, 연구

다. 이들은 골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불같은 열정을 바치며 갱들에서 절실히 쓰이는 화공품들의 성분유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드디어 나노복합화공품을 리용한 새로운 화공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화공품은 우선 종이를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가 편리하다. 또한 나노복합화공품에 플유리성분이

다. 이들은 골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불같은 열정을 바치며 갱들에서 절실히 쓰이는 화공품들의 성분유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드디어 나노복합화공품을 리용한 새로운 화공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화공품은 우선 종이를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가 편리하다. 또한 나노복합화공품에 플유리성분이

다. 이들은 골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불같은 열정을 바치며 갱들에서 절실히 쓰이는 화공품들의 성분유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드디어 나노복합화공품을 리용한 새로운 화공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화공품은 우선 종이를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가 편리하다. 또한 나노복합화공품에 플유리성분이

다. 이들은 골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불같은 열정을 바치며 갱들에서 절실히 쓰이는 화공품들의 성분유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드디어 나노복합화공품을 리용한 새로운 화공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화공품은 우선 종이를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가 편리하다. 또한 나노복합화공품에 플유리성분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인생을 꽃피운 로동계급출신당일군

조세옹동지의 값높은 환생에 수놓아진 고귀한 밑음과 은정

조선로동당의 70년사를 결철한 위인들의 손길아래 펼쳐진 인간성장의 아름다운 화원속에 위대한 동지애의 서사시가 엮여진 성스러운 나날이기도 하다.

혁명적 동지애의 최고 화신 이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혈의 인간,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났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늘 당의 기초를 쌓던 시기로부터 많은 인연을 맺으신 동지들을 추억하시며 그들을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각별히 품을 들이고 손때를 묻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내세워 주신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중에는 로동계급출신의 당일군이었던 조세옹동지도 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오늘날 영생의 값높은 삶을 누리는 조세옹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이아말로 평범한 일군도 당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는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역사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조세옹동지를 부르시어 곧 함경북도에 내려가 도안의 전방적인 사업을 로해하고 보고서를 준비할때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근심하시는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는 그의 안방에는 크나큰 믿음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조세옹동지는 몇몇 일군들과 함께 즉시 현지로 내려갔다. 원래 아무 일에서나 간간하고 치밀하였던 그는 이전보다 도수를 더욱 높여 도의 전반적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였다. 그리고 그 경형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였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이 거창한 전인민적인 전투를 직접 발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공장 당기사업학에 해보지 못한 조세옹동지에게 현지에서 70일전투를 지휘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조세옹동지는 천리해안의 파격적통찰력으로 70일전투의 중심과편을 명확히 정해주시고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판단성있는 지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수완으로 사회주의대전선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보좌해드리면서 한두번만 매혹의 격정을 타르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수송문제때문에 고심하던 조세옹동지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걸어주시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조세옹동지의 건강이 어떠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서 항들에 확실제기를 봐주어야 하겠는데 말대나 만들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조세옹동지는 생각을 더듬으며 큰 마음을 먹고 잘하면 10대정도 만들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요즘 평안북도당 책임비서이던 대만명이 좋습디다. 도당책임비서가 늘 작업복차림으로 다니면서 군중속에 들어가고 농촌에 가서는 농민들과 마주하고 새끼도 꼬며 정치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평안북도당 책임비서가 사업을 바로하는것 같습디다라고 믿을어린 평가의 말씀을 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조세옹동지에 대해 이렇듯 평도자이시거늘 또 다른 아버지이시고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스승이시였다.

크나큰 영광의 절정에서

주제 63(1974)년 2월 1일이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당사업을 하던 조세옹동지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를 만나뵙는 크나큰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커다란 감격에 휩싸여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친히 자리를 권하시며 《날씨가 뜨겁게 오고 있다고 수고했습니다.》라고 따듯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나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 첫 순간부터 조세옹동지는 태양의 인력으로 온 세계를 뒤흔들것만 같은 그의 위인적품모에 매혹되어 끝없는 흥도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때 우리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역사적의무의 전철에 로동계급출신의 당일군을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며 조세옹동지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정을 소중히 간직하시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세옹동지는 이룰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뵈다가 모시고 일하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그는 자신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수령님께 드리는 기쁨, 바로 여기에 조세옹동지를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직업적인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해 그토록 중요한 과업을 맡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 깊은 의도가 있었고 수령님의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좌해드릴수 있는 원칙적인 방향과 방도가 있었다.

조세옹동지는 또다시 밤을 새워가면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김책체철련합기업소와 무산광산(당시)에 오게 하고 보고서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기업소들의 생산공정을 따라가면서 제기되는 자료들을 검토하기하고 하고 보고서의 매 문구, 모든 지료가 정확하리도록 분석적으로 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방향대로 다시 완성된 보고서를 아버지수령님께서 함경북도에 도착하시자마자 그에게 드리였다.

잠시 동안은 두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달사이에 50대정도 만들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는 동무가 로동계급출신이기때문에 배정되어 가는가 했더니 그렇지 못한것 같습디다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가는 심장이 커야 한다. 그래야 당과 혁명앞에 어려움이 제기되어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난관을 맞받아 물과구름 열여섯고 칠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며 자신에게 적극 뒤받침해주셨으니 대담하게 전개해보라고 고무하시였다.

영원한 사랑의 전설

혁명의 길에서 한번 인연을 맺은 동지들에게 특별한 자로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의리를 지키시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결한 천품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호른 조세옹동지의 환생은 병약한 육체적정명까지도 왕성한 청년으로 꽃피운 부활은 인생행로였다.

조세옹동지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보고 몸은 약해도 《강령》이었다고 추억하곤 한다. 그들이 스스럼없이 말하는 이 《강령》이라는 두 글자속에 조세옹동지를 위해 기울이신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여있는지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영원한 사랑의 전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로동계급들을 그의 앞에 놓아주시면서 이 로리가 동무의 병에 아주 좋다가에 내가 직접 과업을 주어 준비한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데서 다 들어야 합니다라고 거듭 권하시였다.

조세옹동지는 혁명을 애써 누르며 로리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러면 참으로 생각해. 그 어떤 음식도 한두술가락 넘기 어려웠는데 이 로리는 잠간사에 한접시를 다 비웠던것이다.

그 모습을 눈여겨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너무나 기쁘시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동무가 살았습니다. 동무의 병은 완치될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니 그 로리를 다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때 우리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역사적의무의 전철에 로동계급출신의 당일군을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며 조세옹동지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정을 소중히 간직하시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세옹동지는 이룰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뵈다가 모시고 일하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그는 자신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진짜 배기혁명가가 되라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그러한 조세옹동지에 오늘 동무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알려주려고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수령님의 제에 따라 동무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비준하였습디다. ...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꿈 꽃피워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

어머니 그 사랑 하늘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움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
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며칠전 우리는 당에서 품을
마련해준 사랑의 궁전에서 세상
만복을 누려가는 원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서
수백리길을 달려 원산육아원,
애육원에 도착하였다.

바라만 보아도 원아들을 따뜻
이 품어안아주는 어머니당의 손길
이 눈물겹게 어러오고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던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가슴찌릿이
결감하게 하는 곳이었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원산
육아원이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각종
그림들로 하여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복도를 지나 연혁소개실에

들어서면 우리는 하나의 글밭앞에서
저도모르게 생각이 깊어졌다.
1951년 2월 28일,
이날이 바로 졸업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
의 발기에 의하여 채택된 내각
결정에 따라 원산보육원(당시)
이 개원된 날이었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중요한 시기 최고사령부에 전제
고아를 데려다 키우시던 그
사랑으로 온 나라의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며 우리
수령님 얼마나 마음을 많이도
쓰시던가.
전생사로 이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인류역사에서 그 어떤
침략자들도 아이들의 순진한 꿈
과 운명을 짓밟아버리는데서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까지 미래
와 같이 야수화된 침략자들을
알지 못하고있다.
폭력에 엄마를 잃고 애처롭게
우는 어린이의
모습을 기록영
화에서 보면서
원수들의 악랄
성과 전쟁의
가렬성에 대하
여 깨달았고
간호원들이 병사들이 아니라
어느 한 육아원, 애육원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긴장한 전투를 벌
린 전설같은 이야기가 꽃피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뒤이어
오늘은 이곳 원산육아원, 애육원
이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에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연혁소개문의 글밭이 새겨주
는 여운을 안고 우리는 어린이
들이 역경델레비존을 마주하고
제미니는 아동영화를 보고있는
교양 1반에 들어갔다.
새 집자랑을 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우리는
국제아동절인 6.1절 날 원아
들을 대표하여 준공페트를 끊은
성심사와 영평이의 நட나든 자랑도
없이하는 그들이었다.
이렇게 원아들에게 물려살다
싶이 하면 때로는 가장살림도
들볼새가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유가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아들을
찾고 만나보고 하루만도 같이
보내지 못하면 다시 육아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수십년을 육아원의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호동장 김화숙동무의
말이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구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보육실무를 높이기 위한 이들의
탐구의 열정도 배나 높아졌다.
매 원아들의 하루생활에서

알게 되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자기들이
테프를 끊었다고 뼈기뻐 반박
웃는 아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귀여웠다.
뜻깊은 6.1절이 원아들의
한생을 얼마나 소중히 자리잡았
인가.
이곳을 찾으면서 오늘 원산육
아원, 애육원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준공페트를 아이들이 끊게 하
고, 그레야 어른이 되어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도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것이라고 하시며 만장
을 울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다시금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이날 우리는 세상들이 있는
여러 방들도 둘러보았다.
현재 이곳에는 온 나라의 커
다란 관심과 축복속에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9명의 세상들이 있다.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원아들의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이런 미래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
회에서 어떻게 꾸며낼수 있으며
흥내조차 낼수 있겠는가.
책임교양원 김순희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또다시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원래 애육원의 식사실은 여러
층에 배치되어있었다. 원아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꾸리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것
이 오히려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다.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를
헤아려보고 300석 수용능
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
되게 새로 짓도록 하여주시던
것이였다.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따뜻한 정을 한껏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을 하늘에 비길것인가, 바다에
비길것인가.
위대한 어머니품에 안긴 행복의
기쁨이 원아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에 실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쁨의
피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알아오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슴부듯이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원산육아원에서-

우리는 여기 원아들의 궁전에서 이 땅의
수호자, 창조자들의 위훈을 새겨본다. 경사
리는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해준
의 낮과 밤이 흘렀던 그 날에 군인건설자

들의 심정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을까
가득찬 열매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

원아들이 사랑의 궁전에 보금
자리를 편 그때부터 원산육아
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
원들의 궁지와 영에는 더욱
높아졌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리
라 마음속으로 다지는 맹세도
뜨겁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후배세대
입니다.》
사실 원아들을 맡아키우는 보
육원, 교양원들의 수고에 대해
말한다면 어느 락이나 유치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갓난아이때부터
원아들을 키우는 육아원보육원
들의 마음속고집은 더욱 컸다.
말도 할줄 모르는 갓난아이들
에게 조금이라도 눈길도 멀지
지는 않는지 늘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렇게 원아들에게 물려살다
싶이 하면 때로는 가장살림도
들볼새가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유가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아들을
찾고 만나보고 하루만도 같이
보내지 못하면 다시 육아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수십년을 육아원의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호동장 김화숙동무의
말이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구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보육실무를 높이기 위한 이들의
탐구의 열정도 배나 높아졌다.
매 원아들의 하루생활에서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원아들의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이런 미래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
회에서 어떻게 꾸며낼수 있으며
흥내조차 낼수 있겠는가.
책임교양원 김순희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또다시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원래 애육원의 식사실은 여러
층에 배치되어있었다. 원아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꾸리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것
이 오히려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다.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를
헤아려보고 300석 수용능
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
되게 새로 짓도록 하여주시던
것이였다.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따뜻한 정을 한껏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을 하늘에 비길것인가, 바다에
비길것인가.
위대한 어머니품에 안긴 행복의
기쁨이 원아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에 실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쁨의
피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알아오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슴부듯이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미래를 위해 불타는 병사의 심장

40일의 낮과 밤

병사의 눈동자에 새겨진것은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팔초
공사가 끝난 다음 내외부
적, 타일붙이기공사를 비롯
하여 공사를 마감짓는에는
40일이라는 기일밖에 없
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
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전투장에서는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림체
적이며 공세적인 화선식정

치사업이 힘겹게 벌어졌다.
지휘관도 병사도 어깨를 견고
들고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말그
대로 하나의 격전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 가운데는 원산
시에 고강을 둔 병사들도 있
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을 만나보고싶어 전투장을
찾았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부모
들에게 전해주는 자식들의

정신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을까
가득찬 열매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
원아들이 사랑의 궁전에 보금
자리를 편 그때부터 원산육아
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
원들의 궁지와 영에는 더욱
높아졌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리
라 마음속으로 다지는 맹세도
뜨겁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후배세대
입니다.》
사실 원아들을 맡아키우는 보
육원, 교양원들의 수고에 대해
말한다면 어느 락이나 유치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갓난아이때부터
원아들을 키우는 육아원보육원
들의 마음속고집은 더욱 컸다.
말도 할줄 모르는 갓난아이들
에게 조금이라도 눈길도 멀지
지는 않는지 늘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렇게 원아들에게 물려살다
싶이 하면 때로는 가장살림도
들볼새가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유가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아들을
찾고 만나보고 하루만도 같이
보내지 못하면 다시 육아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수십년을 육아원의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호동장 김화숙동무의
말이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구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보육실무를 높이기 위한 이들의
탐구의 열정도 배나 높아졌다.
매 원아들의 하루생활에서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원아들의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이런 미래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
회에서 어떻게 꾸며낼수 있으며
흥내조차 낼수 있겠는가.
책임교양원 김순희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또다시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원래 애육원의 식사실은 여러
층에 배치되어있었다. 원아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꾸리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것
이 오히려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다.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를
헤아려보고 300석 수용능
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
되게 새로 짓도록 하여주시던
것이였다.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따뜻한 정을 한껏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을 하늘에 비길것인가, 바다에
비길것인가.
위대한 어머니품에 안긴 행복의
기쁨이 원아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에 실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쁨의
피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알아오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슴부듯이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원아들의 친어머니가 되여

뺨가 부서지고 선채로 굳어진대도

병사의 눈동자에 새겨진것은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팔초
공사가 끝난 다음 내외부
적, 타일붙이기공사를 비롯
하여 공사를 마감짓는에는
40일이라는 기일밖에 없
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
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전투장에서는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림체
적이며 공세적인 화선식정

치사업이 힘겹게 벌어졌다.
지휘관도 병사도 어깨를 견고
들고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말그
대로 하나의 격전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 가운데는 원산
시에 고강을 둔 병사들도 있
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을 만나보고싶어 전투장을
찾았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부모
들에게 전해주는 자식들의

정신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을까
가득찬 열매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
원아들이 사랑의 궁전에 보금
자리를 편 그때부터 원산육아
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
원들의 궁지와 영에는 더욱
높아졌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리
라 마음속으로 다지는 맹세도
뜨겁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후배세대
입니다.》
사실 원아들을 맡아키우는 보
육원, 교양원들의 수고에 대해
말한다면 어느 락이나 유치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갓난아이때부터
원아들을 키우는 육아원보육원
들의 마음속고집은 더욱 컸다.
말도 할줄 모르는 갓난아이들
에게 조금이라도 눈길도 멀지
지는 않는지 늘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렇게 원아들에게 물려살다
싶이 하면 때로는 가장살림도
들볼새가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유가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아들을
찾고 만나보고 하루만도 같이
보내지 못하면 다시 육아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수십년을 육아원의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호동장 김화숙동무의
말이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구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보육실무를 높이기 위한 이들의
탐구의 열정도 배나 높아졌다.
매 원아들의 하루생활에서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원아들의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이런 미래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
회에서 어떻게 꾸며낼수 있으며
흥내조차 낼수 있겠는가.
책임교양원 김순희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또다시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원래 애육원의 식사실은 여러
층에 배치되어있었다. 원아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꾸리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것
이 오히려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다.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를
헤아려보고 300석 수용능
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
되게 새로 짓도록 하여주시던
것이였다.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따뜻한 정을 한껏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을 하늘에 비길것인가, 바다에
비길것인가.
위대한 어머니품에 안긴 행복의
기쁨이 원아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에 실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쁨의
피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알아오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슴부듯이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온 마을이 부러워하는 집

당일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도서관

합흥의 학대학에서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팔초
공사가 끝난 다음 내외부
적, 타일붙이기공사를 비롯
하여 공사를 마감짓는에는
40일이라는 기일밖에 없
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
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전투장에서는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림체
적이며 공세적인 화선식정

치사업이 힘겹게 벌어졌다.
지휘관도 병사도 어깨를 견고
들고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말그
대로 하나의 격전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 가운데는 원산
시에 고강을 둔 병사들도 있
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을 만나보고싶어 전투장을
찾았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부모
들에게 전해주는 자식들의

정신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을까
가득찬 열매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
원아들이 사랑의 궁전에 보금
자리를 편 그때부터 원산육아
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
원들의 궁지와 영에는 더욱
높아졌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리
라 마음속으로 다지는 맹세도
뜨겁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후배세대
입니다.》
사실 원아들을 맡아키우는 보
육원, 교양원들의 수고에 대해
말한다면 어느 락이나 유치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갓난아이때부터
원아들을 키우는 육아원보육원
들의 마음속고집은 더욱 컸다.
말도 할줄 모르는 갓난아이들
에게 조금이라도 눈길도 멀지
지는 않는지 늘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렇게 원아들에게 물려살다
싶이 하면 때로는 가장살림도
들볼새가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유가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아들을
찾고 만나보고 하루만도 같이
보내지 못하면 다시 육아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수십년을 육아원의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호동장 김화숙동무의
말이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구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보육실무를 높이기 위한 이들의
탐구의 열정도 배나 높아졌다.
매 원아들의 하루생활에서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원아들의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이런 미래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
회에서 어떻게 꾸며낼수 있으며
흥내조차 낼수 있겠는가.
책임교양원 김순희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또다시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원래 애육원의 식사실은 여러
층에 배치되어있었다. 원아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꾸리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것
이 오히려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다.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를
헤아려보고 300석 수용능
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
되게 새로 짓도록 하여주시던
것이였다.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따뜻한 정을 한껏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을 하늘에 비길것인가, 바다에
비길것인가.
위대한 어머니품에 안긴 행복의
기쁨이 원아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에 실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쁨의
피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알아오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슴부듯이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나라의 무상이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과 수상을 만났다

합흥의 학대학에서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팔초
공사가 끝난 다음 내외부
적, 타일붙이기공사를 비롯
하여 공사를 마감짓는에는
40일이라는 기일밖에 없
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
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전투장에서는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림체
적이며 공세적인 화선식정

치사업이 힘겹게 벌어졌다.
지휘관도 병사도 어깨를 견고
들고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말그
대로 하나의 격전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 가운데는 원산
시에 고강을 둔 병사들도 있
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을 만나보고싶어 전투장을
찾았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부모
들에게 전해주는 자식들의

정신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을까
가득찬 열매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
원아들이 사랑의 궁전에 보금
자리를 편 그때부터 원산육아
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
원들의 궁지와 영에는 더욱
높아졌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리
라 마음속으로 다지는 맹세도
뜨겁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후배세대
입니다.》
사실 원아들을 맡아키우는 보
육원, 교양원들의 수고에 대해
말한다면 어느 락이나 유치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갓난아이때부터
원아들을 키우는 육아원보육원
들의 마음속고집은 더욱 컸다.
말도 할줄 모르는 갓난아이들
에게 조금이라도 눈길도 멀지
지는 않는지 늘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렇게 원아들에게 물려살다
싶이 하면 때로는 가장살림도
들볼새가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유가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아들을
찾고 만나보고 하루만도 같이
보내지 못하면 다시 육아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수십년을 육아원의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호동장 김화숙동무의
말이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구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보육실무를 높이기 위한 이들의
탐구의 열정도 배나 높아졌다.
매 원아들의 하루생활에서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원아들의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이런 미래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
회에서 어떻게 꾸며낼수 있으며
흥내조차 낼수 있겠는가.
책임교양원 김순희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또다시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원래 애육원의 식사실은 여러
층에 배치되어있었다. 원아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꾸리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것
이 오히려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다.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를
헤아려보고 300석 수용능
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
되게 새로 짓도록 하여주시던
것이였다.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따뜻한 정을 한껏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을 하늘에 비길것인가, 바다에
비길것인가.
위대한 어머니품에 안긴 행복의
기쁨이 원아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에 실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쁨의
피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알아오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슴부듯이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온 마을이 부러워하는 집

당일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도서관

합흥의 학대학에서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팔초
공사가 끝난 다음 내외부
적, 타일붙이기공사를 비롯
하여 공사를 마감짓는에는
40일이라는 기일밖에 없
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
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전투장에서는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림체
적이며 공세적인 화선식정

치사업이 힘겹게 벌어졌다.
지휘관도 병사도 어깨를 견고
들고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말그
대로 하나의 격전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 가운데는 원산
시에 고강을 둔 병사들도 있
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을 만나보고싶어 전투장을
찾았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부모
들에게 전해주는 자식들의

정신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졌을까
가득찬 열매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
원아들이 사랑의 궁전에 보금
자리를 편 그때부터 원산육아
원, 애육원의 보육원들과 교양
원들의 궁지와 영에는 더욱
높아졌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리
라 마음속으로 다지는 맹세도
뜨겁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후배세대
입니다.》
사실 원아들을 맡아키우는 보
육원, 교양원들의 수고에 대해
말한다면 어느 락이나 유치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갓난아이때부터
원아들을 키우는 육아원보육원
들의 마음속고집은 더욱 컸다.
말도 할줄 모르는 갓난아이들
에게 조금이라도 눈길도 멀지
지는 않는지 늘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렇게 원아들에게 물려살다
싶이 하면 때로는 가장살림도
들볼새가 없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유가를 받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아들을
찾고 만나보고 하루만도 같이
보내지 못하면 다시 육아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수십년을 육아원의 보육원으로
일하고있는 호동장 김화숙동무의
말이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구나
열심히 학습하고있다.
보육실무를 높이기 위한 이들의
탐구의 열정도 배나 높아졌다.
매 원아들의 하루생활에서

우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대를 이어 총대로 빛내어가라고
자식들의 이름을 전으로, 전성,
전산경이라고 지어주었다는 최전
연초소의 한 군관에 대한 이야기
를 감동깊이 들었다. 세상들이의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들을 합치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몸소 야

우리 원아들의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이런 미래를 약속강성이
지배하는 색고 병든 자본주의사
회에서 어떻게 꾸며낼수 있으며
흥내조차 낼수 있겠는가.
책임교양원 김순희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또다시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원래 애육원의 식사실은 여러
층에 배치되어있었다. 원아들의
편리를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꾸리기도 하였지만 누구도 그것
이 오히려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다.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를
헤아려보고 300석 수용능
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
되게 새로 짓도록 하여주시던
것이였다.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따뜻한 정을 한껏 부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
을 하늘에 비길것인가, 바다에
비길것인가.
위대한 어머니품에 안긴 행복의
기쁨이 원아들이 목청껏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에 실려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기쁨의
피도 끝없이 밀려오는 동해의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들
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알아오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슴부듯이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우리는 고

동족대결에 광분할수록 괴뢰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더욱 참혹한 파멸뿐이다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야망을 버려야 한다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북남관계의 위기를 수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진취적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에 주체적의지로부터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5돐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당국의 악랄한 <체제통일>책동부터 견제되어야 한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이 그 근원인 <체제통일>책동부터 견제되어야 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일은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를 북과 남의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갈 의지를 안고 시종일관 편방제방식의 통일을 주장해왔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편방제방안과 남측의 편방제방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괴뢰들은 우리의 정당한 입장과 6.15 공동선언에 도전하면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이 <체제통일>책동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짓밟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조국통일과 반제국주의를 낳는 조건에서 자기의 사상과 제도만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을 피할수 없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기초에서 편방제방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된것은 민족내부에 그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전략책 때문이다. 이로 하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서게 되었지만 그 차이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며 형성, 공고화된 북과 남의 민족적공통성보다 클수 없으며 개별적인 계급이나 당파의 리해관계가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귀중할수 없다. 북과 남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다보면 얼마든지 단합을 이룰수 있고 평화적통일을 향해 나아갈수 있다. 이것은 6.15 통일시대의 기적비판 나날들이 확증해준 진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한사코 <체제통일>, <제도통일>을 시도하고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력사와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 데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편방제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온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는것은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의 <체제통일>책동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낳는 기본화교이다. 미국은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

가는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괴롭힘살아하러 한다면 대결을 피할수 없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기초에서 편방제방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된것은 민족내부에 그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전략책 때문이다. 이로 하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서게 되었지만 그 차이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며 형성, 공고화된 북과 남의 민족적공통성보다 클수 없으며 개별적인 계급이나 당파의 리해관계가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귀중할수 없다. 북과 남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다보면 얼마든지 단합을 이룰수 있고 평화적통일을 향해 나아갈수 있다. 이것은 6.15 통일시대의 기적비판 나날들이 확증해준 진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한사코 <체제통일>, <제도통일>을 시도하고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력사와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 데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편방제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온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는것은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의 <체제통일>책동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낳는 기본화교이다. 미국은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

가는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괴롭힘살아하러 한다면 대결을 피할수 없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기초에서 편방제방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된것은 민족내부에 그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전략책 때문이다. 이로 하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서게 되었지만 그 차이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며 형성, 공고화된 북과 남의 민족적공통성보다 클수 없으며 개별적인 계급이나 당파의 리해관계가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귀중할수 없다. 북과 남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다보면 얼마든지 단합을 이룰수 있고 평화적통일을 향해 나아갈수 있다. 이것은 6.15 통일시대의 기적비판 나날들이 확증해준 진리이기도 하다.

벌리고있는 추악한 모략소동의 몇가지 실례를 들자.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 놓고 천만국민의 일상단결을 해치며 <체제통일>을 실현하려는것이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체제통일>책동에 광분하는 속에 북남관계가 어떤 운명을 치하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불보듯한 일이다. 괴뢰패당의 망동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이제 와서는 언제 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르는 실로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추호도 묵과함이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우리의 이 신념과 의지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괴뢰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체제통일>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비참한 종말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북남관계의 위기를 수습하자면 남조선당국이 반통일적인 <체제통일>책동을 견제시키고 대결자세를 버리는것이 급선무이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명시한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여기서 짝이 없는 <체제통일> 야망을 버리고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이 공존, 공영하는 민족통일의 길만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도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은 정 철

북남관계악화를 노린 정치적도발

남조선괴뢰들이 북남관계악화의 길에 더욱 로골적으로 나섰다. 폭로선과 같이 괴뢰당국은 지난 26일 <북을 지원하고있는 기관과 개인>들을 지칭하며 <대북금융제재>조치라는것을 공포하였다. 괴뢰들은 이것을 <북의 변화용유>하기 위한 <대강한 압박>조치로 광고하고 있다. 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저지하려는 온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우리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다.

남조선괴뢰들의 <제재>소동은 박근혜와 수하층들이 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무분별하게 발악하고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박근혜당이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조치라는것을 내는 목적과 그 시점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괴뢰당이 <북의 변화용유>를 위한 <대강한 압박>으로 <금융제재>의 칼을 빼든것은 미국의 <대화와 압박병행전략>에 따른것으로서 북남사이에 대결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고 체제대결을 소멸화하기 위함이다. 현 <정권>이 출현하여 지금까지 북남사이에서 온건한 대화 한번 진행되지 못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 원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극구 추종하면서 상진의 반공화국압살전략을 그대로 북남관계에 적용하는 박근혜당에게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반공화국 <제재>소동도 그렇다. 미국과 유엔의 남조선적인 <대북제재>소동에 적극 가담하여 앞장서서 돌아친 괴뢰들이 이제는 주제넘게도 저들이 독자적으로 <대북금융제재>를 가하겠다는 뉘스리치며 날뛰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그 누구를 협상상에 나오게 하기 위한것으로 묘사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자들인가. 민중이 속대어 올라 거들거려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의 입김이 없이는 한사코 살자할수 없는 괴뢰당이 <제재>를 운운하는것은 가스소독기나 알약 동냥주머니로 알약을 가하여 그 누구를 대화로 유도해보겠다는것이 어리석기 그지없다.

<제재>소동은 끝 대결이며 나아가서 전쟁을 불러온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온 민족이 북남관계의 단결과 파국을 막아온 리명박당에게 <5.24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고있

는것도 그대문이다. 괴뢰당국은 그에 도전하여 또 다른 <제재>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북남관계가 더 큰 파국으로 치닫해 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5.24조치>에 <대북금융제재>조치를 덧붙이는 바로 여기에 박근혜당의 고의적인 북남관계악화책동의 엄중성이 있다.

지금 해내의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천명할 공화국정부성명을 지지찬동하며 조국해방일흔살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문로가 열리기를 고대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겨레의 지향과 민족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웅당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보다싶이 박근혜당은 반공화국 <제재>소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우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어대면서 외세와의 군사적격락을 강화하며 미국의 핵잠수함까지 끌어들이어 전쟁열을 고취하고 <북진역타격>을 노린 한도없이시일시일하며 핵선제공격을 위한 북침준비행동에 힘써치고있는것도, <인권>의 간판밑에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남조선에 설치한것도 다름아닌 박근혜당이다. 지어 괴뢰패당은 우리의 병천토권을 약에 차서 헐뜯으면서 <고립과 체제만을 가져올것>이라느니, <사대학살>이니 하는 망발까지도 서슴치 않고있다. 이러한 도발적책동의 연장선으로 이번 <대북금융제재>소동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의지를 괴뢰들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으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한 온 겨레의 힘찬 사색은 박근혜당이 추구하고있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단결하여 폭로해주고있다.

박근혜당이 북남관계악화로 막다른 골목에 빠져든 저들의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발악하고있던 그것은 결코 출로로 될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재>니, <압박>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며 무덤하게 날뛰는 괴뢰패당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들뜨게 할 단단의 격동태세를 진일하였다. <제재>소동에 미처날뛰는 도발자들이 가당케 될 곳은 력사의 무덤밖에 없다. 최 철 순

반공화국모략기구를 당장 철거하라

괴뢰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일환으로서 서울에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강력히 반대해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남조선의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주로총 등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북인권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공화국모략기구의 폐쇄를 주장하였으며 이어 시위투쟁을 벌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유엔 <북인권사무소>개설은 동족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와 위험성에 대하여 날발이 까밝혀왔다. 그들은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북을 모해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확대재생산하고 <대북적대정책>과 체제대결만을 강화하게 되며 결국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은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인권의 간판밑에 체제전환 추구하는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반대한다!>, <정부는 진정한 화해협력, 평화체제구축에 즉각 나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민가협상수후위원회, 코리아연대 등도 23일 미국대사관앞에서 집회와 위헌성에 대하여 날발이 까밝혀왔다. 그들은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반대하고 반통일적인 괴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단체들은 유엔 <북인권사무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옹호와 아무런 연연도 없으며 오히려 대결과 갈등만을 야기시키는 모략기구라고 하면서 미국과 괴뢰당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력사상 최악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를 대항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결고해와 <고립과 체제대결을 가져올것>이라느니, <사대학살>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해대며 기구를 반도시 철회시킬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종교단체의 한 대표도 현 괴뢰당국은 예기불동담정등과 반공화국모략사범으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다 못해 이제는 외세를 등에 업고 유엔 <북인권사무소>까지 설치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완전히 파괴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과 유엔의 범죄를 죽을 때까지 고발하겠다.> 라고 웨치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유엔은 <북인권사무소>를 미국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극악한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체제대결을 부추기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목사 발로 만들어 놓겠다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를 대항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결고해와 <고립과 체제대결을 가져올것>이라느니, <사대학살>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해대며 기구를 반도시 철회시킬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종교단체의 한 대표도 현 괴뢰당국은 예기불동담정등과 반공화국모략사범으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다 못해 이제는 외세를 등에 업고 유엔 <북인권사무소>까지 설치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완전히 파괴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과 유엔의 범죄를 죽을 때까지 고발하겠다.> 라고 웨치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유엔은 <북인권사무소>를 미국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극악한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체제대결을 부추기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제 코 부러 씨 으라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를 대항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결고해와 <고립과 체제대결을 가져올것>이라느니, <사대학살>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해대며 기구를 반도시 철회시킬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종교단체의 한 대표도 현 괴뢰당국은 예기불동담정등과 반공화국모략사범으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다 못해 이제는 외세를 등에 업고 유엔 <북인권사무소>까지 설치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완전히 파괴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과 유엔의 범죄를 죽을 때까지 고발하겠다.> 라고 웨치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유엔은 <북인권사무소>를 미국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극악한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체제대결을 부추기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남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혼란상태가 한달이 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정부가 방역에 나서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국장급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도, 여행객의 수가 70%나 줄어들었다. 상업, 식당 등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판매액이 30%나 떨어졌다.

남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혼란상태가 한달이 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정부가 방역에 나서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국장급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도, 여행객의 수가 70%나 줄어들었다. 상업, 식당 등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판매액이 30%나 떨어졌다.

남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혼란상태가 한달이 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정부가 방역에 나서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국장급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도, 여행객의 수가 70%나 줄어들었다. 상업, 식당 등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판매액이 30%나 떨어졌다.

남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혼란상태가 한달이 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정부가 방역에 나서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국장급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도, 여행객의 수가 70%나 줄어들었다. 상업, 식당 등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판매액이 30%나 떨어졌다.

남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혼란상태가 한달이 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정부가 방역에 나서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국장급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도, 여행객의 수가 70%나 줄어들었다. 상업, 식당 등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판매액이 30%나 떨어졌다.

남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혼란상태가 한달이 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정부가 방역에 나서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국장급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도, 여행객의 수가 70%나 줄어들었다. 상업, 식당 등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판매액이 30%나 떨어졌다.

행복동인들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를 대항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결고해와 <고립과 체제대결을 가져올것>이라느니, <사대학살>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해대며 기구를 반도시 철회시킬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종교단체의 한 대표도 현 괴뢰당국은 예기불동담정등과 반공화국모략사범으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다 못해 이제는 외세를 등에 업고 유엔 <북인권사무소>까지 설치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완전히 파괴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과 유엔의 범죄를 죽을 때까지 고발하겠다.> 라고 웨치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유엔은 <북인권사무소>를 미국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극악한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체제대결을 부추기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대결책의 산물이라고 심랄히 규탄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명증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전선세력 <국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이라는것을 채택하려고 집요하게 날뛰고있는 사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약책동의 돌격대로 변질하게 나선 사실 그리고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농담은 그들이 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떠벌이며



남조선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의한 혼란상태가 한달이 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정부가 방역에 나서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국장급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도, 여행객의 수가 70%나 줄어들었다. 상업, 식당 등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판매액이 30%나 떨어졌다.

